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썩지 않는 꿈을 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매달리다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뜻하는 라틴어 '크레도'는 '심장을 바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내 심장을 바치는 영적 결단입니다.

죽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죽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마 16:24)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는 게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이 다시 사는 길'이라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 생각과 고집이 죽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교만이 죽고, 하나님 말씀이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심장 대신 예수님 심장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참신앙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 살 때, 결국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 죽을 사람을 찾으십니다. 목숨을 위해 살지 않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진짜 신앙인이 되는 성도의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저희는 사랑의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강북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 등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❶ 담임목사님께서는 18일(월)~22일(금)까지 새로남교회에서 열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108회 총회에 참석하십니다.

❷ 셀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셀모임이 되어서 셀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❸ 매주 수요일에 거리전도를 합니다. 이 지역의 생명 구원에 한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이번 주 식당봉사 - 1셀

▶ 다음 주 - 2셀

#### ◆ 9월 행사 일정

일	교회행사
9/18~22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8회 총회 (새로남교회)

####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충원
- 부교역자 : 강성찬
- 교육간사 : 이지영
- 행정간사 : 정동배
- 시무장로 : 장순산 조태형
- 협동장로 : 김수근
- 성가지휘 : 전영희
- 반주자 : 이소희 홍숙의

#### ◆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유 치 부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9: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청소년부	오전 9:00
수 요 예 배	오전 11:00	청 년 부	주일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밤 9:30	새벽기도회	새벽 5:00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